

EBS - 대치동
특별선별문항

정시, 기본개념과
입시결과 형성

대학별 논술
완벽대비법

D-DAY



정성민

입시연구소장



다원교육

2019년 10월15일

기획 박윤찬

디자인 박수연 임다민

2019
수능대비
학습칼럼 vol 3



기획 박윤찬
디자인 박수연 임다민

Copyright © (주)다원교육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1. 직전대비 점검학습

[국어] 전재림 선생님

[영어] 셴 티 선생님

[수학] 맹 룡 선생님

[한국사] 장유리 선생님

Sub I) 대치동이 말하는 EBS 특별 선별문항

Sub II) 수험생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 대학별 논술 완벽대비법

[논술] 정성민 입시연구소장님

3. 정시, 기본개념과 입시결과 형성

[엔젤스컨설팅] 김의연 컨설턴트

조영탁 자문위원

수능 D-30. 직전대비 점검학습

[국어] 전재림 선생님

[영어] 셴 티 선생님

[수학] 맹 룡 선생님

[한국사] 장유리 선생님

Sub I) 대치동이 말하는 EBS 특별 선별문항

Sub II) 수험생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1

전재림 선생님께 묻습니다. —

전재림T

現) 다원교육 고등관 강사

現) 대치이강학원 강사

現) 분당대찬학원 강사

現) 오르비 클래스 강사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던 그 해 11월의 쌀쌀한 공기가 생각납니다.

수능날 도시락은 뭘 먹어야할지, 갑자기 내 시계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너무紧张해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당일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오만 가지 걱정에 참으로 불안했던 11월로 기억이 됩니다.

일부러 더, 수능 끝난 다음날을 생각해보기도 하고 버킷리스트도 써보고 그렇게 나름 꾸역꾸역 버텼던 그 11월이 여러분에겐 어떤 시간일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올해도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온 1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시험장까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긴장감을 떨치기 위해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시험장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거가 없을지라도 자신감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이 꼭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창창한 앞날을 기원하며,

전재림 드림

수능 국어 11월, 이제는 마무리 : 6,9평 연계학습 중요성

수능 이를 전엔 무얼 해야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묻습니다. 당연히 무얼 해야할 지 가장 고민되고, 어려운 시기가 바로 11월입니다. 제대로 된 마무리 방법이 무언지, 많은 곳에서 올해 6월, 9월 평가원 기출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올바른 분석인지 이번 회차 칼럼을 통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례로, 2017학년도 기출들을 살펴보고 시작해봅시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문항 28번과 당해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항 39번은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유사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월 평가원의 28번은 '포아송비'에 대한 정의와 분자/분모에 적절한 대입을 통해 문제를 풀었어야 했고 이 문제풀이의 매커니즘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수능의 39번 (보험료율 문제) 였습니다.

2018학년도의 6월 평가원 '통화정책 지문'과 그 해에 출제된 수능 '오버슈팅'의 지문의 서술 방식(비례/인과 관계 측면에서의 서술)이 매우 유사했던 것도 기출의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의 2회분 기출에서 우리가 살펴야할 것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월 평가원: 화작문 10번의 자료해석 엄밀성, 이제는 완전한 유형으로 굳어진 지문형 문법 문항(11-12), 문법 문제에서 <보기>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준 15번, 오랜만에 등장한 표제/부제 문항 19번, 비판 유형의 까다로움을 보여준 21번(문장 독해의 엄밀성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유형은 아니지만 문학 작품 감상에서 다소 까다로운 문제로 출제되어 일치/불일치의 무서움을 보여준 25번, 18학년도의 전통을 이어 까다롭게 출제된 경제 지문에서의 인과 파악 문항 29번(이는 16학년도B형 30번 문항 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고전시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야함을 여실히 보여준 34번, 개체성(미토콘드리아) 지문의 유기적 서술과 이를 철저하게 반영한 41번

9월 평가원: 지문형 어법은 이분법적 독해가 중요함을 보여준 11-12번, 늘 고민하게 되는 문항은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개념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14번, 지문의 유기적 서술은 변함없지만 갑자기 호흡이 짧아진 문장과 불친절한 서술이 우리를 얼마나 당황하게 하는지 보여준 '사료로서의 영화' 지문, 법률관계가 대세임을(19학년도 6평, 수능 출제) 다시 한 번 보여준 점유/소유 지문(심지어 이 지문은 서술 방식을 다시 한 번 꼭 점검해봅시다. 19학년도 사법 지문과 비교하면 더욱 좋습니다.) 문학개념어의 최종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준 32번, 직관적 이해보다 논리적 독해가 필요함을 보여준 41번

2019학년도 수능이 상당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던 것을 상기해볼 때, 2020학년도 수능은 그만큼 악랄할 수는 없으나 그만큼 악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월에는 다양한 사설 문항을 푸는 것도 좋지만 2017학년도부터의 기출(4개년, 11회분)을 다시 분석하는 것을 꼭 병행하며 마무리하시기를 강권합니다. 모두들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 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A]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 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②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
-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⑤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2.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 ②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공정한 보험이 된다.
- ③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④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3.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4. 밑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6.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 ② ㉡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 :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 ④ ㉣ :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⑤ ㉤ :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다.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주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반구형의 지붕인 돔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돔 지붕이 지름 45 m 남짓의 넓은 원형 내부 공간과 이어지도록 하였고, 지붕의 중앙에는 지름 9 m가 넘는 ㉡ 원형의 천창을 내어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다. 콘크리트에서 결합재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이 일어나 골재, 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진다.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하기에도 좋다. 반죽 상태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부어 경화시키면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콘크리트의 골재는 종류에 따라 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골재들 간의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형태면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인 압축력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당기는 힘인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진다. 압축력이나 인장력에 재료가 부서지지 않고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단위 면적당 최대의 힘을 각각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 10배 이상 높다. 또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최대 줄어드는 길이는 인장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늘어나는 길이보다 훨씬 길다. 그런데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철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데다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높다. 특히 인장 강도는 월등히 더 높다. 따라서 보강재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 대부분의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하면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 다만 철근은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대개는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그 지점을 ㉣ 위주로 철근을 보강한다.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아송 비이다. 철재는 콘크리트

보다 포아송 비가 크며, 대체로 철재의 포아송 비는 0.3, 콘크리트는 0.15 정도이다.

강도가 높고 지지력이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서, 대형 공간을 축조하고 기둥의 간격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근대 건축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예술적 ㉤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기술이 예술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신념을 가졌던 르 코르뷔지에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점을 사보아 주택에서 완벽히 구현하였다. 사보아 주택은, 벽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는 달리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2층 거실을 둘러싼 벽에는 수평으로 긴 창이 나 있고, 건축가가 ‘건축적 산책로’라고 이름 붙인 경사로로는 지상의 출입구에서 2층의 주거 공간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테라스로 나와 지붕까지 연결된다. 목욕실 지붕에 설치된 작은 천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면 이 주택이 자신을 중심으로 펼쳐진 또 다른 소우주임을 느낄 수 있다. 평평하고 넓은 지붕에는 정원이 조성되어, 여기서 산책하다 보면 대지를 바다 삼아 항해하는 기선의 갑판에 서 있는 듯하다.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려는 연구가 계속되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등장하였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이 제작된다. 먼저,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붓는다.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철근이 줄어들면서 콘크리트에 압축력이 작용하여 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 김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기둥 사이를 30 m 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이 간격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였기에 구현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다. 이 구조로 이루어진 긴 지붕의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넓은 실내를 환하게 채우며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내부를 대리석처럼 빛나게 한다.

이처럼 건축 재료에 대한 기술적 탐구는 언제나 새로운 건축 미학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특히 근대 이후에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적인 건축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유기적인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건축 재료의 특성과 발전을 서술하면서 각 건축물들의 공간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건축 재료의 특성에 기초하여 건축물들의 특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건축 재료의 기원을 검토하여 다양한 건축물들의 미학적 특성과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 ④ 건축 재료의 시각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각 재료와 건축물들의 경제적 가치를 탐색하고 있다.
- ⑤ 건축물들의 특징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 원인을 제시하고 건축 재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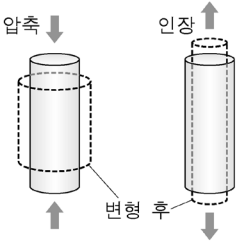
- ① 판테온의 돔에서 상대적으로 더 얇은 부분은 상부 쪽이다.
- ② 사보아 주택의 지붕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 ③ 김벨 미술관은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용하여 넓고 개방된 내부 공간을 확보하였다.
- ④ 판테온과 사보아 주택은 모두 천창을 두어 빛이 위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 ⑤ 사보아 주택과 김벨 미술관은 모두 층을 구분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3.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은 철근 콘크리트가 철재보다 크다.
- ② 일반적으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보강재로 사용할 때는 압축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넣는다.
- ③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는 철근의 인장력으로 높은 강도를 얻게 되어 수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④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철근이 복원되려는 성질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줌으로써 인장 강도를 높인 것이다.

- ⑤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는 데에는 크기가 다양한 자갈을 사용하는 것보다 균일한 크기의 자갈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철재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와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에 힘을 가하며 변형을 관찰하였다. A와 B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줄어들면서 지름은 늘어났다. 또, A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늘어나면서 지름이 줄어들었다. 이때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으로 나누어 포아송 비를 구하였더니, 일반적으로 알려진 철재와 콘크리트의 포아송 비와 동일하게 나왔다. 그리고 A와 B의 포아송 비는 변형 정도에 상관없이 그 값이 변하지 않았다. (단, 힘을 가하기 전 A의 지름과 높이는 B와 동일하다.)

- ① 동일한 압축력을 가했다면 B는 A보다 높이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 ② A에 인장력을 가했다면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은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보다 컸을 것이다.
- ③ B에 압축력을 가했다면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은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보다 작았을 것이다.
- ④ A와 B에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B의 지름이 A의 지름보다 더 늘어났을 것이다.
- ⑤ A와 B에 압축력을 가했을 때 늘어난 지름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A의 높이가 B의 높이보다 덜 줄어들었을 것이다.

5. 밑글과 <보기>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철골은 매우 높은 강도를 지닌 건축 재료로, 규격화된 직선의 형태로 제작된다. 철근 콘크리트 대신 철골을 사용하여 기둥을 만들면 더 가는 기둥으로도 간격을 더욱 벌려 세울 수 있어 훨씬 넓은 공간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산화되어 녹이 쓴다는 단점이 있어 내식성 페인트를 칠하거나 콘크리트를 덧입히는 등 산화 방지 조치를 하여 사용한다.

베를린 신 국립 미술관은 철골의 기술적 장점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건축물이다. 거대한 평면 지붕은 여덟 개의 십자형 철골 기둥만이 떠받치고 있고, 지붕과 지면 사이에는 가벼운 유리벽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다. 최소한의 설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천장에 닿아 있지 않고 내부 공간이 텅 비어 있어 지붕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준다. 미술관 내부에 들어가면 넓은 공간 속에서 개방감을 느끼게 된다.

- ① 베를린 신 국립 미술관의 기둥에는 산화 방지 조치가 되어 있겠군.
- ② 휘어진 곡선 모양의 기둥을 세우려 할 때는 대체로 철골을 재료로 쓰지 않겠군.
- ③ 베를린 신 국립 미술관은 철골을, 김벨 미술관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개방감을 구현하였겠군.
- ④ 가는 기둥들이 넓은 간격으로 늘어선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재료로는 철골보다 철근 콘크리트가 더 적합하겠군.
- ⑤ 베를린 신 국립 미술관의 지붕과 사보아 주택의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은 벽이 아닌 기둥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6. ㉠~㉤을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행복은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의 산물이다.
- ② ㉡ : 이 건축물은 후대 미술관의 원형이 되었다.
- ③ ㉢ : 이 물질은 점성 때문에 끈적끈적한 느낌을 준다.
- ④ ㉤ : 그녀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
- ⑤ ㉤ : 그의 발명품은 형의 조언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 **소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 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 **보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밀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

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1. 밑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 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 ㉤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 ~ 3/31	4/1 ~ 6/30	7/1 ~ 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⑩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⑪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⑫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

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⑬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⑭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⑮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⑯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⑰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A]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⑬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⑭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⑮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⑯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⑰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

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 ②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2. ㉠을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 ③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 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절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션티 선생님께 묻습니다. —

Shean.T

現) 다원교육 고등관 강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과정
-한국외대 영어통번역, 통역장교
-KISS EBS, Masterpiece 모의고사 저자

Keep it slow but steady,
you win the race.
Shean.T.



Hi friends! 셀티입니다.

기본 좋게 찬 시월의 날씨가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종든, 싫든, 11월 14일이라는 날짜는 무심하게도 나를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은 어떤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더 빨리 공부 정신 차리고 시작할걸. 하, 수능 때 떨면 안 되는데.>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잖아. 난 나를 믿잖아. 00야, 할 수 있다> 이런 견잡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회오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져야 할 생각은, 너무 지나친 절망도, 그렇다고 너무 근거 없는 희망도 아닙니다. 남은 기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내가 풀 수 있는 것을 푼다.'라는 마음가짐이 좋습니다.

이미 지나간 날들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정해서, 그것으로 한 달을 밀어붙이세요. 또한, 정말 수능 만점자가 아닌 이상, 시험장에서는 분명 내가 못 푸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말리지 말고, '내가 풀 수 있는 것을 확실히 푼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이 올해 노력한만큼,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만큼 제대로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력한만큼, 그래서 내 실력만큼 나오는 것만큼 더 값진 결과가 있을까요? 자, once again. 나는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걸 한다. 그리고 풀 수 있는 걸 풀고 온다. 그래서 내 노력만큼, 실력만큼의 결과를 후.회.없.이 받아낸다. 이 생각으로 남은 기간을, 그리고 수능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험은 막판이 제일 중요합니다. 힘들더라도 마지막 '한 발짝'만 더 내딛으셔서, 후회없는 결과를 마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며,
션티 드림.

Keep it slow but steady,
you win the race.
Shean.T.

5.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

In a movie of long ago, *Sleeper*, the protagonist wakes up from a several-hundred-year sleep ① **understandably** malnourished and **disoriented**. His doctors are **overheard** planning a high-potency diet of **sugar-laden** foods for him, shaking their heads at the “**primitive**” beliefs that the **medical establishment** once held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at vegetables were ② good(← bad) for you. Now, they say, everyone knows that they cause cancer. While **intended to** be funny, that scene **captures the** ③ **dilemma** you face when **evaluating** information and research to guide your behavior. It is not enough to hear experts tell you things unless you evaluate them for yourself. On one hand, you should **exhibit** healthy **skepticism** toward ideas that ④ **conflict with** what you think you already know, or what has **been grounded** in your experience. Yet, on the other hand, you should **force** yourself to **remain** ⑤ **open to** new ideas that may actually be more **accurate** and useful.

*protagonist 주인공 ** malnourished 영양실조의 *** high-potency 고효능의

요약

1. 영화 슬리퍼: 주인공이 수 백년의 수면 후 깨어나니 의사들이 채소는 당연히 암을 유발하니 설탕 가득 식단을 먹이자고 얘기함.
- 2→ 정보를 평가할 때 전문가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평가해야
3. 내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엔 건강한 의심을 하는 한편, 새로운 생각에 열려 있어야 함!

Shean.T's

1. 변형: 어휘. 영화 예시도 흥미롭고, 그 후 서술도 평가원이 좋아하는 내용에, 단어 사용도 좋다. 특히 2번의 경우, 유치원생 단어인 'bad'라 쉬이 넘어갈 수 있는데, 어휘 문제는 어휘 자체보다 '이해(논리)'를 본다는 걸 명심. 2번은 앞뒤로 21세기와 미래의 믿음이 반대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 좋다. 또, 내가 잘 아는데, 2번이 틀린 거 같지만 왠지 너무 앞이고 단어도 너무 쉬워서 학생들이 3,4,5에서 시간을 결국 많이 쏟는 효과도 준다는 점에서 준킬러로 좋은 문제다 😊

5번: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혹은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판단할 때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하며(skeptical),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있어 (open) 한다는 지문. 지문의 서두에 '영화' 예시를 드는 것도 수능영어스럽다. 2018학년도 수능영어 31번 연계 빈칸도 Apocalypse Now라는 영화 지문이었다는 TMI.

2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지문

Why must we keep **insisting** that education is **primarily** academic **in nature**? Why is there a **hierarchical structure** of education that places academia at the top and the arts at the bottom? Learning **takes** many **forms**. Children do not all learn in the same way. You cannot seat them all behind desks in a classroom, **dictate information** to them and expect them to **absorb** all of it like a sponge. Some will do well learning in this way. A great deal will not. The **latter** of these children prefer to learn with their bodies, with their hearts and with their imaginations. They are the dancers, the runners, the singers, the actors, and the writers. They are absolutely wonderful people who give so much joy and happiness to others, yet we do not value them as we should. Instead, we reprimand them for not **(빈칸 fitting in with the other mob(→crowd).)**

* reprimand 질책하다 ** mob 무리, 군중

요약

1. Problem: 학문은 교육의 계층 위에, 다른 예술은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경향. 학문을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못하는 아이도 있음
2. However, 후자의 아이들은 다른 다양한 걸 더 잘할 뿐.
3. Yet, 이를 존중하지 않고 잘 못 어울린다고 혼내기나 함

Shean.T's

1. 변형: 빈칸. 학생들이 모두 공부를 하며 똑같이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배워야 한다는 지문. 빈칸에는 잘못된 we의 생각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다른 군중과 들어맞는 것'이 어울리겠다. 빈칸 바로 앞에 not도 조심! 답은 2번!
2. 선택도 100% 동의하는 부분.

22번: '교육적'으로 아주 좋은 지문. 배움(learning)이라는 것이 학문적인 (academic) 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배움이 있음을 역설. 허나, 현재 우리는 이를 존중하지 못하는 문제 의식이 좋은 지문. 이 글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수능을 통한 학문적인 배움을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대학 가서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배움을 통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8.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지문

Companies that **inspire**, companies that **command trust and loyalty over the long term** are the ones that make us feel we're **accomplishing** something bigger than just saving a dollar. (C That feeling of **alliance** with something bigger is the reason we keep wearing the jersey of our hometown sports team even though they have not **made it to** the playoffs for ten years. It's why some of us will always buy products from a certain brand over other brands, even if the brand isn't always the most **affordable** choice.) (B Whether we like to admit it or not, we are not entirely **rational** beings. If we were, no one would ever fall in love and no one would ever start a business. **Faced with an overwhelming** chance of failure, no rational person would ever take either of those risks.) (A But we do. Every day. Because how we feel about something or someone is more powerful than what we think about it or them.)

요약

1. 좋은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그 이상을 제공하는 회사
2. 이런 '같이 한다'는 느낌이 바로 한화를 계속 응원하고 아이폰을 계속 사는 이유
3. 우리는 합리적 존재가 아니기에 사랑도, 사업도, 한화를 응원하는 무모한 짓도 하는 것!

Shean.T's

변형: 순서. 내용도, 흘러가는 논리도, 쓰는 단어도 무난히 평가원스러운 좋은 지문, 변형. 특히나 B에서 A로 넘어갈 때 do 동사로 take risks를 받아준다는 점이 킬링 포인트! 답은 5번!

28번: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 기업이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는지, 그 비합리적 감정 측면을 고려한다는 내용. 그러니까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있겠고, 그러니까 한화도 열심히(선티는 대전 사람) 그리고 리버풀도 열심히 응원하는 이유가 아닐까?

33.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지문

Our tendency to **overlook** habit can be explained by one aspect of habit itself: the way in which **familiarity** and **repetition dull** our senses. Marcel Proust describes habit as a ‘heavy curtain’ which ‘**conceals** from us almost the whole universe, and **prevents us from** knowing ourselves.’ (C Not only this: habit ‘**cuts off** from things which we have **witnessed** a number of times the root of profound impression and of thought which gives them their real meaning.’ Proust realized that an artist has to **draw back**, or tear open, this curtain of habit, so that the most familiar features of our world become visible, meaningful, and cause for wonder.) (A But this is also the philosopher’s task. Although it is often said — quoting Plato or Aristotle — that philosophy begins with wonder, the wondering state of mind is only reached by first penetrating the heavy curtain of habit.) (B So habit is a **uniquely** philosophical issue, and it is also an important and profound feature of ordinary life. A few European philosophers have **gone so far as to** claim, like many teachers in the Buddhist tradition, that habit provides ‘an answer to the problem of the self’, that our **continuing identity** through time and change is produced by the tenacity of habit.) If this is true — and perhaps even if it is not quite true — then habit’s **ambiguity and uncertainty** belong to the mystery of human selfhood. The question of habit may be **inseparable from** our hardest, deepest, most **insistent** question: who are we? who am I?

* penetrate 뚫고 들어가다, 관통하다 ** tenacity 완강함

요약

1. Problem: 익숙함에 젖어 습관을 간과.

Solution: 우리는 이 습관의 커튼을 걷어 경이로움을 목격해야 함.

2. But 마찬가지로 철학자도 습관의 커튼을 걷어야 경이로움을 통해 철학 가능

3. 습관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철학적인 문제. ‘난 누구인가’

Shean.T’s

변형: 순서.내용도 장문 2문제에 순서 변형이라는 점도 좋은 친구. 마지막 4줄 정도는 나온다면 빠질 것. 구조를 보자면 주어진 글에서 ‘습관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C에서 또 다른 문제 및 해결책 제시. A에서 이 문제, 해결이 ‘또한’ 철학자의 할 일. B에서 부연하며 마무리! 답은 4번.

33번: 습관을 두꺼운 커튼에 비유하여, 이 두꺼운 커튼을 찢혀 열어야 함을 역설하는 지문. 그리고 이 습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철학’의 영역이라 설명함으로써 소재의 가치가 급상승한다. 2문제 장문을 변형한 순서라는 점도, 수능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수능특강 영어

Test1 24, 25번 장문

36.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

The mind has a **remarkable facility** for **categorizing** new experiences into learned patterns largely shared within a culture. (B This process **transforms** the new **into** the familiar and allows us to make sense of the new sounds and images we encounter every day. So, no matter how musically open-minded we try to be, our experiences can lead us to expect music to exhibit certain **common elements** in certain contexts.) (C For example, a person growing up in the United States is **inclined to** expect harmony as a **standard musical trait**. Harmony, several notes occurring at the same time to form a chord, is found in virtually everything we hear on the radio and in music videos, film scores, classical music concerts, and church choirs.) (A But this musical element, at least in the familiar chords of the West, is a European **invention**. Thus, we may find music without harmony strangely thin and find ourselves missing what's not there instead of listening to what is there — to other **dimensions** of sound and to nuances of **melodic variation** and pitch, for instance.) Furthermore, ~~sound is not the only dimension that shapes our musical expectations. We also understand musical experiences through their place in our social lives, through their context. Much of the music making that we hear in Western culture comes from professionals who are paid to entertain. At a party, few nonprofessionals would feel comfortable singing a song for others. But in many areas of traditional Africa, where not singing is like not talking, everybody sings as a natural social function.~~

요약

1. 인간의 머리는 새로운 경험을 익숙한 패턴으로 분류 잘 함
→ 음악도 특정 맥락에서 공통의 요소를 가질 거라 예측
2. ex. 서양권에서는 항상 음악에 화음이 있기 때문에 화음이 없다면 이상하게 여길 것
3. + 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장소)도 중요.
ex. 서양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자연스럽다.

Shean.T's

변형: 순서. 두 문제 장문을 잘라 에센스에 추가한 문제. 이 문제는 소재도 좋지만, 순서 문제 자체에 있어서도, (A)의 this element가 (B) 마지막의 common elements를 받는 게 아님을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harmony라는 '단수'를 받는다는 것. 답은 3번!

36번: 33번과 마찬가지로 2문제 장문을 변형한 순서이기에 수능에서 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익숙한 패턴을 통해 이해함을 설명하는, 소위 '스키마'를 설명하는 지문이라 할 수도 있겠다. 이 예시로서 음악의 '화음(harmony)'을 가져온 것도 아주 수능영어적으로 적절한 전개라고 할 수 있겠다.

Test2 17번 빈칸

6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

In school, students **rarely** learn to view **disagreements** among scientists as a natural part of the **progress** of science; most textbooks are written as if science is a set of truths to be ① memorized. Teachers, especially in America, **are under enormous pressure** to cover a large number of **unrelated** science topics each year to prepare their students for **accountability tests**, which generally measure students' ability to recall facts. When **breadth** is ② emphasized over depth, there simply is not time to discuss how the scientific ideas came to be. There is ③ **barely** time to help students **grasp** the meaning of the ideas themselves. On the rare occasions when students **are exposed to** historical ideas about science, those ideas tend to be **dismissed** with ④ minimal(← active) discussion of why they were **replaced**, or why scientists held them in the first place. Students **are left with** the ⑤ impression that scientists held some silly ideas in the past, but now they have them all figured out, and today's scientific theories are true.

* accountability test 책무성 평가, 학생 성적 책임 평가

요약

1. P: 학생들이 과학을 암기 과목으로 보고 과목의 불화를 중요하게 못 봄
2. But 깊이보다 너비가 강조되면 학생들이 과학의 한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할 시간이 없음
3. → 학생들은 과학의 이론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는 못 보고, 그냥 과거에는 어리석었는데 지금은 진실을 알았구나, 정도로 생각

Shean.T's

변형: 어휘. 난이도는 있으나 결국 글을 관통하는 핵심 논리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평가원y하다. 바로 학생들이 과학의 깊이(B=meaning, historical ideas, why)는 보지 못하고 넓게만(A=memorize, facts) 보는 게 '문제'라는 것. 2, 3번은 그러한 문제 상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 4번 문장 역시 B가 제시되었을 때 B가 dismiss(일축) 된다는 얘기인데, why(B)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된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원문 단어인 'minimal'로 바뀌어야 한다. 답은 4번!

62번: 과학 교육에 있어 의미가 깊은 지문. 과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토론 (discuss), 의견이 다름에 따른 논쟁 (disagreement) 등이 중요한데, 학생들은 과학을 그저 암기할 것(memorize)으로만 배우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잘 드러남. 특히나 암기를 너비(breadth), 토론과 논쟁을 깊이(depth)로 비유해 표현한 것이 화룡점정.

5강 4번 어법

6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지문

The idea that innovation **is linked with meeting the needs** of social groups means that the problems innovative people seek to solve **are** at least partly **socially determined**. Where there is no **social awareness** that a problem exists, there may be no **drive** to produce solutions and thus no innovation. A simple example is the area of the design of everyday objects — tools, for example. A tool may be **awkward to use** and inefficient, or possibly even dangerous — a hammer is a good example. However, it may be so familiar to so many people that they have **become accustomed to** its disadvantages and may be able to use it very effectively, **despite** the disadvantages and **inconvenience**. They may even **be incapable of** imagining that a hammer could be different. In this case, there is no **social pressure** to introduce **effective novelty** and, **in a sense**, no problem, no matter how bad the design may be, because (빈칸 society has decided there is no problem).

- ① society has decided there is no problem (O)
- ② the needs to be improved have been met (반)
- ③ a better tool will be produced in the future (반)
- ④ social bias has tricked people into using hammers (off)
- ⑤ people do not have drive to use a hammer anymore (off)

요약

1. 혁신은 사회 집단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 사회적으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를 위한 해결책, 혁신도 없음.
2. ex. 망치, 되게 단점이 많은데 사람들이 쓰다 보니 익숙해져서 단점이 문제인지 인식도 못 하고 아주 잘 사용함.
3. → 새로운 기능이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없음.

Shean.T's

변형: 빈칸. 어렵지는 않은 친구이나 좋아서, 31번에서 마주할 법한 친구다. 애초에 사회적으로 망치가 문제라는 인식이 없으니, 망치가 별로여도 사람들이 잘 사용한다. 그대로 1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64번: 어떤 현상이 문제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회'이기에, 사회가 문제 의식이 없으면 이를 해결할 동기도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지문. 특히나 이번 9평을 포함한 수능영어에서 이 '사회'의 역할은 항상 중요한 화두.

Test2 38번 문장삽입

10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

There are **a number of** ways in which technology can be used to ① protect social network users from **disclosure** or privacy threats or **violations**. More ② drastic technical solutions involve **disabling** or banning social media/ social networking. For example, some schools and workplaces place **explicit restrictions** or in some cases a complete ban o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they are disabled at the IT level so that students or employees cannot access these sites. The problem with this solution is that the benefits of using these sites are also ③ lost. Additionally, while this may **prevent** use of these sites during school or work hours, it has no impact on what is done after hours. The **context collapse** that occurs in an online environment ④ blurs(← clarifies) the line between people's professional and personal lives such that online information exchanges that occur outside of school or work hours impact people's lives at school or work. Therefore, ⑤ employing these strategies is not necessarily effective in **minimizing** the potential risks overall. [3점]

* **drastic** 철저한, 격렬한

요약

1. 사생활 침해를 막는 극단적 해결책: SNS 사용을 학교, 직장에서도 아예 금지
2. → Problem: SNS 이점이 사라짐 + 학교, 퇴근 후에는 노영향
3. + 요즘에는 근무 외 시간 SNS도 업무의 연장이라 효과 X

Shean.T's

변형: 어휘. 답은 4번. SNS의 부작용을 막으려고 이를 아예 제한하거나 금지하면 오히려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글이다. 4번의 경우 학교, 직장 시간 외 발생한 소위 '카톡'이 실제 학교, 직장 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므로, 사람들의 직업 (professional)과 개인적(personal) 삶의 경계를 분명하게(clarify) 하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blur) 한다.

109번: SNS의 문제가 크다고 해서 이를 극단적(drastic)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SNS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지문. 특히나 지문 뒤쪽에서 SNS 로인해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삶의 경계가 허물어졌음을 설명하는 부분이 관건. 2018학년도 35번 흐름 문제 또한 SNS 지문이었다는 TMI.

수능완성 4강 1번 제목

11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지문

The world **is** quite **eager to** give you a set of standards, for which you can be imaginative, if you let it. The world will tell you what is unrealistic, far-fetched, **impracticable**, not very **sensible**, and impossible. Unfortunately, many of us allow these **restrictions** to be placed upon our imagination. When we accept limiting beliefs, they become our **boundaries**; we will not imagine beyond what we perceive is a limit. While you are an imaginative being, when you imagine your potential, consider ideas, or **contemplate** changes that you wish to make, thoughts that fit within your beliefs are what receive your attention. Ideas that seem unbelievable, you ignore. Consequently, your imagination **is** (빈칸 **bound**) to some degree **by** your beliefs, although you **occasionally** permit preposterous thoughts, such as **daydreaming** of an ideal life or **fantasizing** about the perfect spouse, for entertainment value.

* far-fetched 억지스러운 ** preposterous 터무니없는

요약

1. 세상은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그 기준을 자꾸 주입하려 함
2. Problem: 이러한 기준이 나의 상상력의 한계를 설정함
3. →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 상상력이 제한됨

Shean.T's

1. 변형: 빈칸. 답은 1번. 세상의 기준이 나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믿음을 형성해서 상상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는 것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상상력이 '구속, 제한'된다는 bound 가 답. 사실 이 문제는 쉽기도 쉬운 게, 지문이 '문제' 즉 P 지문이구나 파악만 해도 선지를 보면 P 선지는 1번밖에 없다! 제발 이런 거 진짜 중요하다.. 지문이 문제의식인지 아닌지부터 알자.

2. 오답:

- ② exercised: 발휘되는 (반대) ③ liberated: 자유롭게 되는 (반대)
④ enhanced: 강화되는 (반대) ⑤ complemented: 보완되는 (반대)

114번: 학생들에게 세상이 주입하는 한계에 구속되지(bound) 말고, 더 기발하고 더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발휘 할 것을 촉구하는 교육적인 지문. 그 문제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12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지문

Suppose we know that Paula **suffers from** an acute **phobia**. If we reason that Paula is afraid either of snakes or spiders, and then establish that she is not afraid of snakes, we will conclude that Paula is afraid of spiders. However, our conclusion is reasonable only if Paula's fear really does concern either snakes or spiders. If we know only that Paula has a phobia, then the fact that she's not afraid of snakes **is** entirely **consistent with** her being afraid of heights, water, dogs or the number thirteen. More generally, when we are presented with a list of **alternative** explanations for some phenomenon, and are then persuaded that all **but** one of those explanations are unsatisfactory, we should **pause** to reflect. Before conceding that the remaining explanation is the correct one, consider whether (빈칸 other plausible options are being ignored or **overlooked**.) The fallacy of false choice misleads when we're insufficiently **attentive to** an important hidden assumption, that the choices which have been made **explicit exhaust** the sensible alternatives.

* acute 극심한 ** concede 인정하다 *** fallacy 오류

요약

1. ex. P의 공포증이 뱀이나 거미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한 경우에만, 뱀은 안 무섭다고 하면 거미를 무서워하는구나 할 수 있는 것
2. 즉 선택지가 있고, 그중 하나 빼고는 조건 충족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놓친 선택지가 있나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함
3. 이것이 잘못된 선택의 오류: 안 보이는 가정에 집중하지 않으면 보이는 선택지가 가능한 대안을 안 보이게 할 수 있음.

Shean.T's

1. 변형: 빈칸. 답은 3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지문의 소재, 센스가 축이 와서 별을 두 개 줌.

- 요약대로 이해만 하면 빈칸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 즉, 내가 생각한 후보 선택지 외에도, '다른' 대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라는 것. 그걸 무시하면 문제가 되겠지.

① 이 하나의 유일한 설명이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off)

② 포기한 설명들이 여전히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지

(매력 오답. 포기한 설명들 말고 그 '외' 대안들을 말하는 것)

④ 결론을 정당화하는 이유들이 상호 동의된 것인지 (off)

⑤ 대안의 수가 유효한 결론이 될 만큼 충분한지 (off)

122번: 글의 서두를 예시로 시작하며 뒤쪽에서 일반적인 언어로 정리해주는 구조가 참 수능스러운 지문. '사고'를 통해 이 지문의 두 케이스를 이해하는 게 관건이다. 즉,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정답 선택지가 하나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정답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내가 놓친, 숨겨진(hidden)것은 없는지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고하는 지문. 지문의 뒤 쪽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 꼭 챙겨두도록 하자.

맹룡 선생님께 묻습니다. —

맹 룡T

-KAIST 수학과 졸업
-서울과학고 조기졸업
前) 대원외고 출강
前) 시대인재 강사
現) 다원교육 고등본관 강사



전국 수험생 여러분, 다원교육 맹룡 선생님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지난 1년간 준비를 많이 한 학생이든, 그렇지 못했던 학생이든, 누구나 초조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단 하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받는다는 부담감이 점점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혹자는 공부가 가장 쉽다고도 하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볼 때면, 언제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고, 그 힘든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더욱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똑같이, 꾸준히 해야 합니다. 현재 본인의 점수가 소위 안정권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래달리기(계주)에서는 마지막 한 바퀴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1등이 넘어지거나, 꼴찌가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시간, 최근 3년간의 6월/9월/수능 기출문제들을 다시 한번 시간 채고 풀어보시고,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한 번 더 복습하시길 권합니다.

다시 한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능을 바라보고 공부해 온 모든 수험생 여러분,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될 것입니다. 이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새해에는 모두 원하는 대학, 학과에 입학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며,
맹룡 드림.

수능완성 수학 나형

수학2 집합과 명제

8pg NO.09

문제

09

실수 전체의 집합의 두 부분집합

$$A=\{1, 2, 3\}, B=\{x|x^2+ax-a-1=0\}$$

에 대하여 $A \cup B = A$ 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의 값의 합은?

-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수능완성 수학 나형

수학2 집합과 명제

8pg NO.11

문제

11

두 집합

$$A=\{x|x \text{는 } 10 \text{ 이하의 자연수}\},$$

$$B=\{x|x \text{는 } n \text{의 양의 약수}\}$$

에 대하여

$$(A-B) \subset X \subset A$$

를 만족시키는 집합 X 의 개수가 16이 되도록 하는
20 이하의 자연수 n 의 개수를 구하시오.

수능완성 수학 나형

수학2 함수

24pg NO.33

문제

33

함수 $f(x) = \frac{cx+d}{ax+b}$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두 직선 $y=ax+b$, $y=cx+d$ 는 점 $(1, 2)$ 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나) f 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x \neq -\frac{b}{a}$ 인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1}(x)=f(x)$ 이다.

함수 $y=f(x)$ 의 그래프의 두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p, q) 일 때, $p+q$ 의 값은?
(단, a, b, c, d 는 상수이다.)

- ① -4 ② -2 ③ 0
④ 2 ⑤ 4

수능완성 수학 나형

수학2 수열

32pg NO.15

문제

15

세 양수 a, b, c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a, b, c 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나) $a^2+b^2+c^2=28$, $ab+bc+ca=22$ 이다.

보기 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b+c=6\sqrt{2}$

ㄴ. $b=2\sqrt{2}$

ㄷ. a, k, c 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면 $k^2=60$ 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수능완성 수학 나형

수학2 지수와 로그

42pg NO.03

문제

03

2 이상의 자연수 n 에 대하여 9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 -9 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 이라 할 때,
 $f(4)+g(4)+f(5)+g(5)$ 의 값은?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수능완성 수학 나형

수학2 지수와 로그

43pg NO.04

문제

04

두 집합 $A=\{3, 4, 5\}$, $B=\{-2, -1, 1, 2\}$ 에 대하여 집합
 $\{\sqrt[n]{a} \mid n \in A, a \in B, \sqrt[n]{a} \text{는 실수}\}$ 의 원소의 개수는?

-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수능완성 수학 나형

수학2 지수와 로그

48pg NO.25

문제

25

세 양수 a, b, c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때, 1이 아닌 양수 k 의 값은?

(가) $2^a = 3^b = k^c$

(나) $ab = bc + ca$

- ① 4 ② 5 ③ 6
④ 7 ⑤ 8

수능완성 수학 나형

미적분1 수열의 극한

56pg NO.14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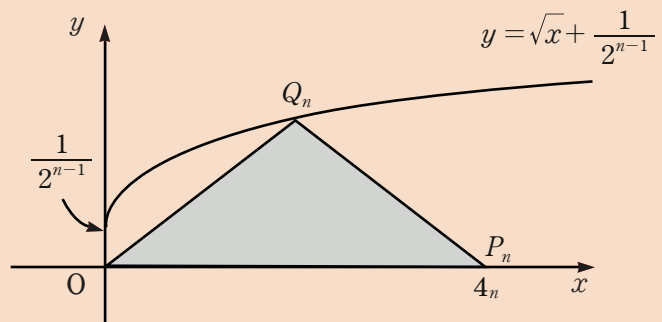
14

자연수 n 에 대하여 x 축 위의 점 $P_n(4^n, 0)$ 과 곡선

$y = \sqrt{x} + \frac{1}{2}$ 위의 점 Q_n 이 $OQ_n = P_nQ_n$ 을 만족시킨다.

삼각형 OP_nQ_n 의 넓이를 S_n 이라 할 때, $\lim_{n \rightarrow \infty} \frac{S_n}{8^n}$ 의 값은?

(단, O 는 원점이다.)



- ① $\frac{\sqrt{2}}{4}$ ② $\frac{3\sqrt{2}}{8}$ ③ $\frac{\sqrt{2}}{2}$
④ $\frac{5\sqrt{2}}{8}$ ⑤ $\frac{3\sqrt{2}}{4}$

수능완성 수학 나형

미적분1 함수의 극한과 연속

75pg NO.37

문제

37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 \begin{cases} \frac{x^2+ax-6}{x-2} & (x \neq 2) \\ b & (x=2) \end{cases} \text{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 는 상수이다.)

보기

ㄱ. $f(1)+f(2)=10$

ㄴ. 함수 $xf(x)$ 는 닫힌 구간 $[-1, 1]$ 에서 반드시 최댓값과 최솟값을 갖는다.

ㄷ. 방정식 $(x^2+x-1)f(x)=1$ 은 열린 구간 $(-1, 1)$ 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수능완성 수학 나형

미적분1 다항함수의 미분법

81pg NO.12

문제

12

두 다항함수 $f(x), g(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lim_{x \rightarrow -2} \frac{f(x)-1}{x+2} = 2$

(나)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g(x) = (x^2-1)f(x)$

곡선 $y=g(x)$ 위의 점 $(-2, g(-2))$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ax+b$ 일 때, $a+b$ 의 값은? (단, a, b 는 상수이다.)

-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수능완성 수학 나형

미적분1 다항함수의 미분법

85pg NO.23

문제

23

실수 t 에 대하여 직선 $x=t$ 와 두 함수 $f(x)=x+2$,
 $g(x)=x^3-2x$ 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h(t)$ 라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방정식 $f(x)=g(x)$ 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 ㄴ. 함수 $h(t)$ 의 극댓값은 4이다.
- ㄷ. 함수 $h(t)$ 는 $t=2$ 에서 미분가능하다.

- ① ㄱ ② ㄴ ③ ㄷ
- ④ ㄱ, ㄷ ⑤ ㄴ, ㄷ

수능완성 수학 나형

미적분1 다항함수의 미분법

87pg NO.29

문제

29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t \geq 0)$ 에
서의 위치 x 가

$$x=pt^3+qt^2+rt$$

이다. $t=1$ 과 $t=3$ 에서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고, $t=3$ 에서
점 P의 가속도가 2일 때, $t=6$ 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하시오.

(단, p, q, r는 상수이다.)

수능완성 수학 나형

미적분1 다항함수의 적분법

93pg NO.12

문제

12

다항함수 $f(x)$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x^2 f(x) = x^3 + \int_0^x (x^2 + t) f'(t) dt$$

를 만족시킨다. $f(0)=2$ 일 때, $f(2)$ 의 값을 구하시오

수능완성 수학 나형

미적분1 다항함수의 적분법

94pg NO.15

문제

15

함수 $f(x) = 2x^3 - 3ax^2 + (a^2 + 2)x - 4$ 가

$$\lim_{n \rightarrow \infty} \sum_{k=1}^n \frac{1}{n} f\left(-2 + \frac{4k}{n}\right) = -20$$
을 만족시킬 때,

$f'(a)$ 의 값을 구하시오. (단, a 는 상수이다.)

수능완성 수학 나형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110pg NO.25

문제

25

지상 1층부터 6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5명이 6층까지 1회 운행하는 동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모두 내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1층에서 내리는 사람은 없고, 같은 층에서 내리는 사람의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1층에서 탑승한 5명 중 n 층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는 경우 $(n+1)$ 층에서 내리는 사람은 없다. (단, $n=2, 3, 4, 5$)

수능완성 수학 나형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112pg NO.31

문제

31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네 정수 x, y, z, w 의 모든 순서쌍 (x, y, z, w) 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 $x+y+z+w=9$

(나) $x \geq 0, y \geq 1$

수능완성 수학 나형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114pg NO.38

문제

38

$(3x+2)^{20}$ 의 전개식에서 계수가 가장 큰 항은 x^k 항이다. 자연수 k 의 값은?

- ① 11 ② 12 ③ 13
④ 14 ⑤ 15

수능완성 수학 나형

확률과 통계 확률

122pg NO.12

문제

12

상자 속에 흰 공 3개, 빨간 공 4개, 검은 공 2개가 들어 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세 가지 색깔의 공 이 모두 포함될 확률은?

- ① $\frac{1}{7}$ ② $\frac{2}{7}$ ③ $\frac{3}{7}$
④ $\frac{4}{7}$ ⑤ $\frac{5}{7}$

수능완성 수학 나형

확률과 통계 확률

123pg NO.17

문제

17

집합 $X = \{1, 2, 3, 4\}$ 에서 집합 $Y = [-\frac{1}{2}, -1, 0, 1, 2]$ 로 의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일 확률은?

(가) $f(3)f(4) \neq -1$

(나) $|f(1)| \neq |f(4)|$

① $\frac{76}{125}$

② $\frac{77}{125}$

③ $\frac{78}{125}$

④ $\frac{79}{125}$

⑤ $\frac{16}{25}$

수능완성 수학 나형

확률과 통계 통계

139pg NO.22

문제

22

어느 모집단의 확률변수 X 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1	3	5	7	합계
$P(X=x)$	$\frac{a}{10}$	$\frac{1}{5}$	$\frac{1}{5}$	$\frac{a}{10}$	1

이 모집단에서 임의추출한 크기가 145인 표본의 표본평균 $\bar{X}$ 에 대하여 $V(\bar{X})$ 의 값은?

① $\frac{1}{25}$

② $\frac{2}{25}$

③ $\frac{3}{25}$

④ $\frac{4}{25}$

⑤ $\frac{1}{5}$

장유리 선생님께 묻습니다. —

장유리T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다원교육 대치 고등분관 출강
-대치명인, 거인, 세정학원 출강
-스카이에듀 한국사 온라인강사
-KG패스원 공무원 한국사 강의



01. 선사 문화와 여러 나라의 성장

p.9/ 1번 [9011-0001]

1. 밑줄 친 '이 시대'에 볼 수 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한반도에는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의 자연환경과 기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머물며 짐승과 물고기를 잡으려고 돌을 갈아 더욱 정교한 도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원시 농경과 목축을 통해 처음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생활과 문화를 혁명적으로 발전시켰다.



- | | |
|-----------------------|---------------------|
| ① 서옥에서 생활하는 신랑 | ② 계절제를 지내고 있는 천군 |
| ③ 가락바퀴로 실을 뽑는 여자 | ④ 장군총을 만드는 데 동원된 남자 |
| ⑤ 잔무늬 거울을 목에 걸고 있는 군장 | |

03.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p.27/ 3번 [9011-0030]

3.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처음 흥덕왕이 돌아가시자 왕의 사촌 균정과 조카 제룡(희강왕)이 다 각기 임금에 되려고 하였다. 이때 …… 궐내로 들어가 서로 싸우다가 김양은 화살에 맞아 우징과 함께 도망하고 균정은 해를 입으니, 그 후 제룡이 즉위하게 된 것이다.

진성 여왕 10년,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에서 봉기하였다. 그들은 바지를 붉게 물들여 스스로 남들과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고적(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이라고 불렀다.

- ① 6조 직계제가 실시되었다.
- ②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소유하였다.
- ③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성장하였다.
- ④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제출하였다.
- ⑤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난을 일으켰다

04. 고려의 발전과 변화

p.39/ 15번 [9011-0055]

15. 다음 조서를 발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기철 등이 임금을 능욕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여 백성에게 해독을 주는 것이 끝이 없었다. 그가 원의 황실과 혼인 관계가 있기에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같이 모두 힘껏 따라주었는데,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겨 몰래 반역을 도모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하려고 하였다. 다행히도 천지와 선조의 신령에 힘입어 기철 등을 모두 처형하였다. …… 기철 등이 빼앗아 차지한 노비와 토지는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 “고려사절요” -

- ① 탕평책을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 ②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방을 신설하였다.
- ③ 서경을 복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개발하였다.
- ④ 몽골 침입에 대비하여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 ⑤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영토를 회복하였다.

06.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p.56/ 9번 [9011 0079]

9.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의겸이 자기 몸을 낮추고 선비와 사귀어 여론이 자못 그를 칭찬하였다. …… 중간에 김효원과 틈이 벌어지면서 동서설이 발생되었으니 심의겸의 집은 서쪽에 있었으므로 심의겸과 교제하는 자를 서인이라 이르고, 김효원의 집은 동쪽에 있었으므로 김효원과 잘 지내는 자를 동인이라 하였다. …… 당초에 이처럼 얹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김효원이 관직이 없던 시절에 윤원형의 집에 출입한 것을 심의겸이 보았다. 후에 조정에서 윤원형의 죄를 논계할 때 김효원에게 그 상소문을 짓도록 하였는데, 심의겸이 친구에게 말하기를, “김효원이 윤원형의 집에 출입하였으니 그 사정을 상세히 알 것이어서 반드시 좋게 지을 것이다.” 하고 소장을 지을 사람의 선발에서 삭제하려고 하자 그 친구가 이를 제지하였다. 그 말이 한번 퍼지자 서로 혈통게 되었다.

- ① 탕평 정치의 결과를 분석한다.
- ② 봉당이 성립된 배경을 알아본다.
- ③ 세도 정치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 ④ 기묘사화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한다.
- ⑤ 신진 사대부가 분화된 이유를 살펴본다.

08.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과 제도 개편

p.70/ 7번 [9011-0103]

7. 밑줄 친 ‘그’의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백 회의에 참석하는 귀족
- ② 균역법 시행 소식을 접하는 농민
- ③ 천리장성의 축조를 명령하는 국왕
- ④ 훈련도감의 설치를 준비하는 관리
- ⑤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에 맞서 싸우는 군인

12. 구국 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의 전개

p.100/ 3번 [9011-0147]

3.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달의 인물

조병갑의 학정,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는 조병갑의 학정을 바로 잡고자 농민들과 함께 관아를 습격하고, 수탈의 상징인 만석보를 허물고 군수를 몰아냈다. 정부가 박원명을 새로운 군수로 임명하고 회유하자 농민들은 자진 해산하였다. 그러나 사건 조사를 위해 파견된 안핵사가 봉기 참여자를 탄압하자 그는 무장에서 재봉기하였다.

- ① 독립 협회를 창립하였다.
- ②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③ 고부 농민 봉기를 주도하였다.
- ④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 운동을 추진하였다.
- ⑤ 신미양요 당시 광성보에서 미군에 대항하였다.

13. 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

p.108/ 2번 [9011-0163]

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큐멘터리 기획안]

제목 : 대한 제국, 국권을 피탈당하다

기획 의도 :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체결된 조약을 통해 일제에 의해 대한 제국의 국권이 피탈되는 과정을 시기 순으로 연속 방영하여 한·일 관계사를 재조명해 본다.

회차별 주요 내용

1부 군사적 요충지를 강점당하다.

2부 (가)

3부 대한 제국, 외교권을 빼앗기다.

4부 일본인 차관이 내정을 간섭하다.

5부 대한 제국, 주권을 강탈당하다.

- ① 군대 없는 나라가 되다.
- ②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다.
- ③ 재정·외교 고문이 파견되다.
- ④ 헌병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다.
- ⑤ 일본식 성명 사용을 강요당하다.

15. 일제의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

p.121/ 6번 [9011-0185]

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모둠

수행 평가 보고서

- 주제 :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추진한 황국 신민화 정책
- 조사 방법 :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 등
- 조사 결과
 -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을 주장하였다.
 - (가)

- ① 태양력을 채택하였다.
- ②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 ③ 을사늑약을 체결하였다.
- ④ 일본식 성명 사용을 강요하였다.
- ⑤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17. 국내 민족 운동의 전개와 일제 강점기 사회·문화 변화

p.135 7번 [9011-0204]

7.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결문

주문 : 피고 허헌, 이관용, 홍명희를 각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

이유 :

피고허헌은 (가)의 중앙 집행 위원장으로, 피고 이관용·홍명희 등은 중앙 집행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원래 (가)은/는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 함.', '단결을 공고히 함.',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이란 강령을 내걸고 조직한 합법 단체임에도, 그 이면에 있어서는 현 정치에 대하여 치열한 불만과 민족 자결의 견고한 사상을 품고 활약하고 있었다. …… 그리하여 피고 등은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론 공작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 ① 진단 학보를 발간하였다.
- ②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였다.
- ③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였다.
- ④ 오산 학교와 대성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21.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 통일을 위한 노력

p.167/ 7번 [9011-0260]

7.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북한에서도 서울을 방문하여 중앙정보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 را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 ①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 ②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③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④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실현시켰다.
- ⑤ 대북 화해 협력 정책(햇볕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미 공부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
들어있기때문에 차분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읽기만하면 정답이 떠오를 것을 믿으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김덕근 선생님

2020 수능 대박~~을
응원합니다 !!

- 한국사 장유리 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2020년은 여러분의 해가 될겁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했고 충분히 만점입니다.”

수능 대~~~박 만점 기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 이윤희 화학쌤

은 수능에서 천재성과 능력이 발휘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수능 생명과학 만점을 기원합니다.

정 수빈쌤

대학별 논술 완벽대비법

[논술] 정성민 입시연구소장님

A large white number 2 is positioned in the lower right quadrant of the page. Behind it, a stack of several books with orange covers is visible, slightly out of focus, creating a sense of depth and academic context.

정성민 소장님께 묻습니다.

Q1

**상경계열의 수리논술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그래프를 보는 방법, 수학적
귀납법 풀이법 등..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인문계열 논술에 수리논제를 출제하는 대학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이화여대, 숭실대, 항공대이다. 대학에 따라 상경계열만 수리논제가 출제되는 대학이 있고, 사회과학대학 전체에서 수리논제를 출제하는 대학도 있다. 한국항공대의 경우 인문계열 학생이 이학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만 수리논술을 보게 된다.

이들 대학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한양대의 수리논술로, 자연계열과 동일한 유형의 순수 수학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 따라서 이들 대학의 수리논술 준비는 평소의 수학 공부의 연장선 상에서 동일하게 해나가면 된다. 다만, 증명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 수학에서는 공부하지 않았던 이들 유형의 문제 풀이에 적응하는 훈련을 별도로 해야 한다. 미적분 단원의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다. 1학년 수학 내용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정식, 함수 등 주요 단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도 좋다.

한양대를 제외한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이화여대, 숭실대, 한국항공대는 사회현상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수리 모형을 설정한 후 수학적 풀이를 진술하는 문제, 설정된 수리적 모형을 적용하여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리논술은 이들 대학에서 출제하고 있는 문제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들은 대부분 확률, 통계나 함수, 방정식, 미적분 단원과 연계된 현실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되기 때문에 해당 수학 단원에 대한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현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수리적 모형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수능 공부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생소함이 클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에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훈련해야 한다.

Q2

과목별 반영비율

같은 개수를 틀리더라도,
<수리논술>에서 틀렸는지
<과탐논술>에서 틀렸는지에
따라서 합불이 갈린다고
들었어요. 과목별 반영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더
주의해서 풀어야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수학(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의 비중은 대학마다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수리논술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자세한 반영비율은 대학별 모집요강을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비중이 높은 수리논술이 당락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목별 시험 난이도에 따라 이런 경향을 달리지기도 한다. 작년 2019학년도 연세대 논술의 경우 수학 시험이 쉽게 출제되고 과학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어 반영비중이 낮은 과학 시험이 당락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Q3

논술&정시의 밸런스

논술에서는 과탐계 과목이
나오지만, 정시에서는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도 출제
포인트가 다르구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비율을
맞춰서 걸어가야 할까요?

연세대를 제외하면 논술을 위해 과학2 과목을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논술에서 출제되는 과학2 내용에 대해서는 제시문에서 충분한 설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능으로 바뀐 이 시기에 논술을 위해 과학2 과목까지 준비하는 것은 합리적인 전략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연세대학교의 경우도 과학2를 별도로 공부하지 않고 과학 논술 강의에서 다루는 과학2의 일부 내용만 공부하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다.

수능 수학과 수학 논술의 출제 포인트가 다른 부분에 대한 대비 전략은 위의 칼럼 내용에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Q4

공대&의대 수리논술 레벨

공대지원시 봐야하는
수리논술과, 의대지원 시
봐야하는 수리논술의 레벨이
많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다른지
감이 잘 안와요. 구체적으로
출제 포인트는 무엇인지,
지원자는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싶어요.

이공계열 수리논술과 의대 수리논술을 다르게 출제하는 학교들이 있다. 가톨릭대, 울산대, 한양대, 경희대, 아주대, 인하대, 부산대, 경북대 등 이화여대와 중앙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의대 수리논술을 이공계열과는 달리 출제한다. 의대 수리논술은 이공계열 수리논술에 비해 어렵다. 2016학년도까지는 두 계열의 문제 수준 차이가 매우 컸는데 2017학년도부터는 의대 문제가 이전에 비해 다소 쉬워진 편이다. 하지만 아직도 의대 수리논술 문제는 매우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 까다로운 증명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다.
- 2 — 교과서적인 익숙한 수학적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여 문제를 풀게 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여 그것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크다.
- 3 — 단선적인 논리의 풀이를 요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대한 답을 구한 후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 4 — 공간도형이나 기백 문제가 출제될 경우 형태를 떠올려서 시각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도형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경시 기하를 공부하여 공간도형 문제 풀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5 —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의 경우 경우를 따지기가 매우 복잡하거나 난해한 문제가 출제되어 학생들을 괴롭힌다.

이 각각에 대한 단기적인 대비전략은 없다고 본다. 수리논술에 자신이 없다면 의대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의대에 지원한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위 다섯 가지 포인트를 떠올려 가며 자신이 정확히 어떤 포인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약점 포인트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유형의 논술 문제를 최대한 많이 구해서 풀어봐야 한다.

Q5

올해 주목해야하는 논술지원 대학은?

매년 최저가 생기고 사라지고, 인원이 늘고 줄어드는 것처럼 많은 변화가 있는 듯해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논술대학을 지원한다면, 어디를 주목하는 것이 좋을까요?

올해 연세대학교가 의대 논술을 폐지하였다. 그래서 예년에 연세대학교 의대 논술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던 가톨릭대학교와 울산대학교, 경희대학교 의대 논술의 결과가 예년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아마도 훨씬 더 합격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된다.

경북대학교가 의대 논술에서 과학을 폐지하였다. 경북대학교는 부산대학교, 중앙대학교와 같은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 세 학교 중 경북대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 선호도가 가장 낮다.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에 비해 경북대학교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매우 높다. 따라서 경북대학교 의대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능최저를 맞출 경우 논술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북대학교 의대 논술에서 자주 나타났던 현상이다. 올해도 역시 그러하리라 생각된다.

—
정성민 소장님께
물습니다

대학별 논술 완벽대비법



정성민 소장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학사/석사
現) 다원교육 입시연구소장
現) YTN 입시자문
前)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입학사정관
前) 대치미래탐구학원 컨설턴트



10월을 지나 11월이 되면 수능 후에 대학별로 논술고사가 시작된다.

논술전형은 내신이나 수능을 통해 합격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대입의 사다리라 평가되는 전형이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튼튼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고2 겨울방학부터 꾸준히 논술고사를 준비해 왔을 것이다. 이제는 현명한 마무리를 통해 그 노력의 결실을 거두어야 하는 시기이다.

1. 인문계열 논술 마무리 전략

논술은 학교 정규 수업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주로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 강의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 방과 후 학교나 학원에서 개설되는 논술 강의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몇 개 대학의 논술 유형을 묶어 가르치고 있다. 예컨대, '연서성 논술반'에서는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의 논술 기출문제를 3주 단위로 하나씩 강의하고 있고, '성중경 논술반'에서는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의 논술 기출문제를 4주 단위로 하나씩 강의한다. 이런 강의 방식은 학생들이 한 대학이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여러 대학을 함께 지원하기 때문에 그들 대학의 논술 준비를 한 강의를 통해 모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하나의 대학에 대해서는 3주 또는 4주 단위로 한 번씩만 수업을 듣기 때문에 집중적인 훈련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꾸준히 논술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각 대학의 문제 유형에 대해 충분히 훈련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논술 시험을 대비하는 마무리 전략은 각 대학의 문제 유형에 대한 집중 훈련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는 논술을 오랜 시간 준비해온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 전략이다. 논술을 처음 준비한다 하더라도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논술 기본기를 훈련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 대학별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라고 하면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뽑아서 매일 하나씩 써 보는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훈련해도 좋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훈련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수능이 임박한 시점에 글쓰기를 포함하여 너무 오랜 시간을 논술에 할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능 공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논술을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check point

우선, 자신이 지원한 대학 중에 수능 전 집중 훈련을 해야 할 대학을 선정하자. 수능 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 대학들 말고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수능 2-3일 후에 바로 시험을 보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연습하는 것을 권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가장 급한 것부터 해치울 필요가 있다.

대학 선정이 끝났다면, 각 대학의 기출문제를 최근 연도부터 입수해서 제시문과 논제를 분석하여 논술 답안의 내용을 구상해 보자. 어떤 내용이 답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를 메모해도 되고 답안의 개요를 작성해 봐도 좋을 것이다. 개요 작성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간단한 메모로 연습하다가 익숙해지면 개요를 짜 보는 방법으로 연습하면 된다.

그런 다음 대학에서 발표한 문제 해설과 자신이 구상한 답안 내용을 비교해 보자. 같다면 대학의 답안을 읽어 보며 확인 작업을 하면 된다. 다를 경우에는 무작정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답안도 논리적으로 문제없는 답안이 될 수 있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시문 해석을 잘못했는지, 논제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인지 등을 체크하면 된다.

선정한 대학의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빠짐없이 분석하도록 하자. 한 문제를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0-60분 정도가 적절하다. 매일 이와 같이 문제 하나씩을 분석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선정한 대학의 기출 문제를 모두 분석했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분석했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수록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점점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연습과 함께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답안을 원고지에 작성해 보는 것을 권한다. 글을 작성해 보면 문장 표현이 서투러 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을 것이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사회 교과서(사회문화, 법과정치, 윤리와사상, 생활과윤리) 중 한 권을 선택하여 교과서 내용을 원고지에 베껴 써보기를 권한다. 하루에 3-5페이지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베껴 쓰기를 할 때에는 교과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머릿속에 새기면서 해야 한다. 생각 없이 손 운동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름 이상 꾸준히 연습한다면 자신의 문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2. 자연계열 논술 마무리 전략

자연계열 논술은 인문계열 논술과는 달리 수학, 과학의 서술형 시험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능에서 공부한 내용의 연장선 상에서 마무리 전략을 취하면 될 것이다. 즉, 수능에서 공부하기 어려웠던 내용이나 유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될 것이다.

check point

우선, **수리논술**의 경우 수능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유형인 증명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를 권한다. 수능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충분한 수학 실력이 길러진 학생의 경우, 기출문제들 중 증명을 요하는 문제들을 선별하여 일주일 이상 꾸준히 연습한다면 어렵지 않게 증명의 기법을 익히고 능숙하게 답안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팁은, 상위대학으로 갈수록 증명 문제가 출제되는 빈도가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증명문제 연습 여부와 양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수리논술에서 하나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수능 수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학1,2 과정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적분이나 기하와 벡터에 비해 출제 빈도와 문제 난도가 높지는 않으나 시험장에서 갑작스럽게 접할 경우 당황할 수 있으므로 수학1,2 과정에서 방정식, 함수, 점과 좌표, 도형의 방정식 정도의 단원은 개략적으로라도 공부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 이들에 한 번은 기출문제 중 하나를 선정하여 답안 작성 연습을 하도록 하자. 나머지는 수능 수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과학논술 수리논술에 비해 난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수능 과학 문제와 비교할 때 문제의 내용 수준이 확실히 높다고 볼 수도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과학 역시 수능 과학을 준비하는 연장선 상에서 수능 공부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된다.

check point

우선, 개념에 대한 설명이 상세한 과학 참고서를 하나 선정하여 틈틈이(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동시간, 자기 전 20분) 읽어 두는 것이 좋다. 주어진 선택지의 내용을 읽고 답안을 선택하는 수능과 달리, 논술은 수능에서 주어지는 선택지의 내용을 스스로 구성해야 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과학 용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서술상의 감점을 줄일 수 있다. 대략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작성된 답안을 보면 감점의 요소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개념 진술이나 부적합한 용어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과학 개념과 용어를 확실하게 익혀두는 것은 수능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논술 답안을 정확하게 진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수학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지원한 대학의 기출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 보기 바란다. 눈으로 문제를 풀거나 대략적인 답안을 끄적이는 수준에서는 쉬워 보일지라도, 막상 정확히 답안을 작성하려하면 생각보다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 까다로운 답안 작성 과정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것이 곧 실전 감각이다.

정성민 입시연구소장



정시, 기본개념과 입시결과 형성

[엔젤스컨설팅] 김의연 컨설턴트 조영탁 자문위원



3

엔젤스컨설팅팀에게
물습니다

정시, 기본개념과 입시결과 형성



김의연 컨설턴트

-한국외대 인문대학
現) 다원교육 입시연구소 컨설턴트
現) 엔젤스컨설팅팀 대표
前) 오르비 공인 컨설턴트
前) 대치 이강학원 프리미엄관 컨설턴트
前) 대치 및 교대 오르비 컨설턴트

조영탁 자문위원

-연세대 경영학과 학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現) 다원교육 독학교육원 원장
現) 엔젤스컨설팅팀 자문위원
前) 대치 이강학원 프리미엄관 컨설턴트
前) 대치 시대인재 운영본부
前) 교대 오르비학원 원장

요즘 정시 원서전략은 '6교시 원서영역'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만큼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얻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자연스럽게 원서전략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년 간 재수학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 시기쯤부터 정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부가 마무리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두번의 평가원 모의평가와 다수의 사설 모의고사들을 통해 본인의 위치에 대한 자각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심에 발맞춰, 수험생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원서전략에 대해 고민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시 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반 또는 졸업년도)		
12345678	홍길동		01.09.05	남	한국고등학교(9)		
구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영역	영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		제2외국어 /한문 영역
			나형		생활과윤리	사회.문화	일본어
표준점수		131	137		53	64	69
백분위		93	95		75	93	95
등급	2	2	2	1	4	2	2

1. 정시 반영지표

가장 먼저 정시에서 반영되는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는 2020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우리가 교부 받을 성적표의 예시입니다. 이미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몇 차례 응시하셨을 테니 익숙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노력의 결과는 위와 같이 3가지의 지표로, 일절 부연설명 없는 직관적인 대수로 다소 잔인하게 출력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 표준점수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상대적인 위치와 각 과목의 난이도를 반영하고자 만든 점수입니다.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는 2005학년도부터 학생들이 시험영역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과목을 응시하는 모집단이 다르고, 과목들 간 난이도 역시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 지에 따라 도입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정시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어와 수학영역을 살펴보면, 숙명여대, 국민대, 단국대 등을 제외한 서울 경기 소재 상위권 대학 대부분은 표준점수를 반영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 백분위 반영) 또한, 가천대, 순천향대, 을지대, 조선대 등 의료계열 학과들을 보유한 일부 학교들을 제외한 많은 지방 소재 학교들 역시 표준점수를 반영지표로 활용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열' 수험생의 경우는 국어, 수학 과목에서 표준점수 외에 다른 지표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계열' 수험생의 경우는 최상위권 학생이 의지한 학과들을 지원하고자 할 때 표준점수와 백분위 간에 유불리 차이가 꽤 발생합니다. 이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A	B		A	B		A	B
국어	92	88	국어	141	123	국어	99	90
수학(가)	84	96	수학(가)	132	130	수학(가)	96	99
합	180	180	합	273	253	합	195	189

19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영역의 원점수 합이 180점으로 같은 학생 A, B가, 어떤 반영지표를 활용하는 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어려웠던 국어 시험의 난이도가 반영되어 해당 영역의 만점 표준점수가 높았고, 원점수 93점까지는 백분위가 100이 나왔습니다. 물론, 자연계열 학생들을 모집할 때는 다수의 대학이 수학영역에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점수를 산출해봐야 하겠지만, 원점수 합이 같아도 반영지표에 따라 꽤 많은 점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1-2. 백분위 (+변환표준점수)

앞서 언급했듯이, 국어와 수학영역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표준점수를 반영하지만, 탐구영역의 경우는 많은 대학이 백분위, 또는 '백분위 변환표준점수'라는 지표를 활용합니다. 백분위 지표는 표준점수와 마찬가지로, 성적표에 찍혀 있는 백분위에 과목별 가중치를 곱해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직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백분위 변환표준점수'라는 지표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변표'라는 줄임말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변환표준점수는 탐구과목에서 선택한 과목에 따라 발생하는 표준점수의 유불리를 완화하고자 만든 점수입니다.

<19학년도 서울대 과학탐구 변환표준점수 중 일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백분위	표준점수	산출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산출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산출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산출점수
97	66	66.18	99	67	67.5	100	72	68.25	100	69	68.25
93	65	64.6	97	65	66.18	99	70	67.5	99	68	67.5
88	64	63.64	95	64	65.28	98	69	66.75	98	67	66.75
81	63	62.97	92	63	64.25	97	68	66.18	96	66	65.71
84	62	61.7	89	62	63.33	96	67	65.71	95	65	65.28
81	61	60.84	87	61	62.62	94	66	64.95	92	64	64.25

위의 표는 19학년도 정시에서 활용된 서울대학교의 과학탐구영역 변환표준점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과목 별로 각각의 백분위 점수가 자체 '산출점수'로 대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9학년도에 생명과학Ⅰ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만점을 받았을 때는 표준점수의 만점이 72점이나, 물리Ⅰ을 선택한 학생이 만점을 받으면 66점으로 이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백분위를 통해 대응시켜 각각 68.25점, 66.18점으로 보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 변환 표준점수를 적용해도 선택 과목 별 유불리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는 것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환표준점수는 그 변환 과정을 각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보정 정도의 차이도 발생합니다. 이를 컨설턴트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 '물보정' 또는 '불보정'이라고 하는데, 백분위의 급간 별로 감점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물보정, 그렇지 않으면 불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구과목에 대해 대학에서 제시하는 명목 반영비율이 있기는 하나, 이렇게 보정 정도를 활용하면 명목비율보다 더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 입시 상황에 따라 전반적인 대학들의 보정 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한 대학 안에서도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따라 보정의 정도를 다르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19학년도 서울시립대 사회탐구 변환표준점수 중 일부>

백분위 점 수	(사회 과학탐구, 제2외국어)		
	가군		나군
	인문계열 1	인문계열 2 (경제, 경영, 세무)	도시행정학과, 자유전공학부
100	75.00	50.00	75.00
99	75.00	50.00	75.00
98	74.88	49.92	74.99
97	74.80	49.87	74.98
96	74.70	49.80	74.97
95	74.52	49.68	74.96
94	74.34	49.56	74.95
93	74.17	49.45	74.94
92	74.01	49.34	74.93
91	73.83	49.22	74.92
90	73.67	49.11	74.91
89	73.49	48.99	74.90

위 표는 19학년도 정시에서 서울시립대학교가 제시한 사회탐구영역 변환표준점수입니다. 인문계열 I 과 인문계열 II 는 각각 탐구영역 반영비율이 15%와 10%로 차이를 보여 만점 기준이 다르지만 보정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군에서 선발한 도시행정학과와 자유전공학부는 인문계열 I 으로 선발하는 학부들인데, 가군의 인문계열 I 과 수평적으로 비교해보시면 확실하게 감점 폭이 적은, 이른바 ‘물보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탐구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험생들은, ‘물보정’을 적용하는 학교나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본인의 절대적 불리를 일정 수준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변환표준점수는 그 전에 언급드린 단순 표준점수와 백분위와는 사뭇 다르고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수입니다. 컨설턴트를 꿈꾸는 수험생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변환표준점수가 기본적으로 백분위에 기반한 점수이며 대학 별로 보정 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의치한 중 탐구영역 변환표준점수 미적용 대학>

백분위	표준점수
가천대, 단국대, 순천향대 등	경상대, 원광대, 인제대, 충남대, 충북대 등

2. 입시결과와 형성원리

앞서 언급했듯이, 국어와 수학영역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표준점수를 반영하지만, 탐구영역의 경우는 많은 대학이 백분위, 또는 '백분위 변환표준점수'라는 지표를 활용합니다. 백분위 지표는 표준점수와 마찬가지로, 성적표에 찍혀 있는 백분위에 과목별 가중치를 곱해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직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백분위 변환표준점수'라는 지표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변표'라는 줄임말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변환표준점수는 탐구과목에서 선택한 과목에 따라 발생하는 표준점수의 유폭리를 완화하고자 만든 점수입니다.

<19학년도 연세대 추정컷 및 경쟁률>

학과	추정컷	경쟁률
문헌정보	733.XX	4.2
경제	733.XX	3.29
불어불문	732.XX	3
문화인류	732.XX	6.4
독어독문	731.XX	3.36
정치외교	730.XX	3.94
응용통계	728.XX	4.18
영어영문	726.XX	6.23
신학	725.XX	3.5
언론홍보	724.XX	5.43
경영	721.XX	3.61
사회	?	4.77

<19학년도 고려대 추정컷 및 경쟁률>

학과	추정컷	경쟁률
사회	678.XX	3.23
교육	674.XX	3.47
경영	674.XX	3.98
국어국문	673.XX	3.27
중어중문	671.XX	3.43
역사교육	670.XX	8.38
보건정책	670.XX	3.16
행정	669.XX	3.88
독어독문	667.XX	4
경제	666.XX	3.63
정치외교	664.XX	4.1
영어교육	?	4.17

위의 표들은 19학년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인문계열의 입시결과 추정치와 경쟁률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선호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연세대의 경우는 최고의 인기 학과들인 언론홍보영상학부, 경영학과, 사회학과가, 고려대의 경우도 역시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입결을 형성했습니다. 비단 19학년도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계열을 막론하고 매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런 현상부터, 입시결과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예측 가능한 영역인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했듯 전체적인 난이도 외에 영어영역의 난이도만이 입시결과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절대평가 실시 이후 영어영역의 반영을 각 대학이 명목 상 반영비율 이상으로 입맛대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1. 거시적 (구조적) 형성 원리

수능의 난이도는 그 해 입시결과와 형성에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의 난이도는 전체적인 난이도를 의미하나, 그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영어영역의 난이도(1등급의 비율)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해서, 19학년도 수능은 최근 수 개년의 수능을 통틀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전 18학년도 수능에 비해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이 공히 상당히 어려워졌는데요. 각 과목 별로 독립시행인 시험이 다같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전 과목을 동시에 잘 본 수험생이 적어지게 됩니다. 즉, 18학년도 수능에 비해 19학년도 수능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밀도가 다소 낮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수능에서 290점까지가 상위 1%라면 어려운 수능에서는 280점이 상위 1%가 될 수 있음.) 최상위권의 밀도가 낮아짐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상위 대학인 A대학의 정시 정원은 1000명이고, 학생들은 모두 A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한다. 수능은 전년에 비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가정에 따르면 정시 등수로 1등부터 1000등까지의 학생들이 A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정상적인’ 입시 구조이기는 하나, 어느 누구도 수험생의 정확한 정시 등수를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애매한 점수대의 수험생들이 주저하게 됩니다. 수능 난이도가 급격하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유명 입시기관들 역시 추정에 어려움을 겪고, 각자 상이한 예측을 합니다. 수험생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본인이 실제로 1000등보다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000등의 컷점수보다 본인의 점수가 ‘숫자상’으로는 낮기 때문에 겁을 먹고 하향지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입시기관들의 예측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입시기관들이 다 함께 어려워진 수능 난이도에 따른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상황이 반대로 일어날 수 있으나, 입시기관들은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수정을 하는 모험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경향성은 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학년도 주요대학 인문계열 영어 반영>

대학	명목반영비	1등급 대비 실제 감점	
		2등급	3등급
서울대	X	- 0.5	- 1
연세대	16.7%	- 8.34	- 20.84
고려대	X	- 1	- 3
서강대	X	- 1	- 2
성균관대	X	- 3	- 8
한양대	10%	- 4	- 10
이화여대	25%	- 5	- 15

<20학년도 주요대학 자연계열 영어 반영>

대학	명목반영비	1등급 대비 실제 감점	
		2등급	3등급
서울대	X	- 0.5	- 1
연세대	11.1%	- 5.55	- 13.89
고려대	X	- 1	- 3
서강대	X	- 1	- 2
성균관대	X	- 2	- 5
한양대	10%	- 2	- 6
이화여대	25%	- 5	- 15

절대평가 시행 이전 표준점수로 반영하던 것과는 달리, 위와 같이 대학 별로 상이한 감점폭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영역의 난이도가 어떤 지에 따라(1등급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해당 대학들에 절대적 유불리를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가령 18학년도 수능시험과 같이 영어영역이 쉽게 출제된 경우, 상위권 학생들 중 영어가 2등급인 학생이 자연스럽게 적었기 때문에, 2등급에 대해 많은 감점을 적용하는 지 여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등급 학생들이 감점을 많이 적용하는 학교들에 지원하여,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경향성도 상당부분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19학년도 수능과 같이 영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된 경우 해당 학교 지원층이 굉장히 얇아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해당 학교 전체의 입시결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집니다.

2-2. 미시적(심리적) 형성 원리

심리적인 요인도 입시결과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언급한 거시적인 면들이 학교 전체의 경향성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면, 심리적인 부분들은 학과 하나하나를 분석할 때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요즘은 '표본분석'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시도하고 계십니다.

표본분석이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나 학과에 지원의사를 가진 표본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의미하는데요. 수험생들이 이를 하고자 할 때는 보통 합격예측 서비스나 카페 등의 수험생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집할 수 있는 표본의 수가 제한적이고 표본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그 업무를 컨설팅에 맡기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은 지면 상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들 관심 가지실 만한 상향지원을 할 때를 특정해, 수험생들이 직접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합격예측 서비스나 커뮤니티들을 통해 본인과 비슷한 점수구조를 가진 학생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안정, 적정원서로는 어디를 고려하고, 상향원서로는 어디를 고려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본인보다 미세하게 점수가 높은 학생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을 가질 만한 부분은, '비슷한 점수구조의 학생들이 그렇게 지원한 이유는 그 학교, 학과가 그들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주기 때문일텐데, 같은 입장에서 이를 포기해야 하는가.' 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실은 '절대우위'와 '상대우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사용해보겠습니다.

한과목만 어렵게 나온 해의 수능에서, 한과목을 제외하고 반영하는 학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본인이 한과목만 망치고 다른 과목을 모두 잘 봤을 때, 이 학교에 지원한다면 '절대우위'를 얻을 수 있지만, 다른 많은 수험생들 역시 그런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상대우위'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본인과 비슷한 점수구조를 가진 학생들을 분석해 그들이 절대우위를 가지기 위해 지원하는 곳을 피해 상대우위를 추구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입시는 점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수로 하는 것이라는, 다소 당연하지만 중요한 말을 끝으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은 모든 분들이 꿈꾸던 결과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의연 컨설턴트

— 조영탁 자문위원

vol.1

다시보는 6월 모의평가
대수능 D-100 공부법
자소서 문항별 접근법

vol.2

다시보는 9월 모의평가
추석연휴, '이것'만은 꼭!
구술면접 완벽대비 방법

vol.3

직전대비 점검학습
수험생 멘탈관리법
EBS 특별선별문항

D-DAY

다원교육



2019년 10월15일
기획 박윤찬
디자인 박수연 임다민